

# 3개의 의자가 있는 잡지를

—창간 3주년을 맞으면서

鄭鎭肅

출판저널 발행인

「출판저널」이 창간된 지 3주년을 맞는다. 지난 3년간은 불모지에 출판저널리즘의 씨앗을 뿌리고 새로 돋아난 가냘픈 새싹을 정성들여 가꾸어온 개척과 인고의 세월이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같이 출판 기업의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고, 독서환경이 취약한 풍토에서 출판저널리즘의 전통을 가꾸어나 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다.

이 개척과 인고의 세월을 우리는 용케도 견디 3주년을 맞았으니 대견하다고 자찬한들 누가 탓하랴. 그러나 우리는 이 공을 모두 「출판저널」을 아끼고 힘써주시는 출판인 여러분과 독자 여러분에게 돌리고, 다시금 허리띠를 졸라매어 스스로를 반성하고 거듭나는 발전을 다짐하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첫째로 「출판저널」은 책을 사랑하는 독자에게 모든 출판활동을 빠짐없이 소개하는 出版情報誌로서의 기능을 더욱 확충해 나가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출판계는 민주화조치 이후 다른 어느 산업분야보다도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한다. 전국 출판사수는 무려 5천4백여개사이며, 작년도 신간 발행부수는 2만부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방대한 신간서적을 남김없이 소개한다는 것은 지면의 제약상 불가능한 일이지만, 소개할 가치가 있는 신간만은 어떠한 형태로든 빠짐없이 소개하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출판인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무엇보다도 바람직하다.

둘째로 「출판저널」은 계속 권위있고 공정한 書評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 창간 초에는 서평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것은 전적으로 서평에 대한 인식 부족과 건전한 비평정신의 결여 때문이었다. 그동안 천편일률적이고 수박겉핥기식이고, 찬사 일변도의 서평에만 길들여진 우리의 비평풍토가 올바른 서평활동을 가로막아 왔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출판저널」이 서평활동의 새로운 방향을 개척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본지에서 위촉한 50명여의 서평편집위원의 부단한 노력 덕택이었다. 이 자리를 빌어 서평편집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본지는 그동안 가꾸어온 서평기능을 더욱 활성화시켜 바람직한 서평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평편집위원 일부를 참신하고 발랄한 소장학자로 교체하였다. 서평기능을 크게 확충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에 새로 참여한 서평위원 여러분의 활약이 큰 힘이 되리라고 믿고 있다.

셋째로 「출판저널」이라는 서재에 3개의 의자가 놓여있는 잡지로 만들고 싶다. 3개의 의자—출판인(또는 편집자)이 앉는 의자와 저자가 앉는 의자와 책을 사랑하는 독자가 앉는 의자—를 빙 둘러놓고 오손도손 앉아 책을 이야기하고 출판의 방향을 토론하는 그런 잡지가 되었으면 한다. 이 3개의 의자의 연결회로를 최대한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우리 국민 모두가 책을 보다 많이 읽고 사랑하는 풍토가 마련되도록 다함께 노력하는 광장이 되고 싶다.

지금 우리 출판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정착과 머지않아 마련될 도서관법, 그리고 탈이념화를 지향하는 국제정세의 급변 속에 기대되는 남북통일예의 접근 등—이러한 주변상황 변동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우리 출판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출판저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하면서 각계 뜻있는 인사의 애정어린 협력과 지도를 바라마지 않는다.

- |          |  |
|----------|--|
| 특집 2     | 도서전달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이중환<br>도서관에 중심축 둔 도서전달체계 구축을  |
| 4        | 뉴미디어시대 출판의 설 자리 갈 길—이범수<br>출판영역의 '잠식'인가 '확장'인가   |
| 6        | 출판도시 건설과 한국출판의 미래—김형국<br>'산업'과 '문화'의 조화 가능케 하는 출판진흥프로젝트  |
| 8        | 세계 유명주간지의 출판기사—이봉호<br>미국·영국·독일·일본의 경우를 중심으로  |
| 10       | 내가 즐겨 읽는 세계의 書評紙·誌<br>「다이어 크리티크」—김성곤<br>「헤겔연구」—강영계<br>「서구비평」—김현창<br>「미가진리테레르」—서정기<br>「週刊讀書人」—이경훈<br>「런던타임스」문예부록—정문길<br>「JEL」—김종석<br>「런던리뷰오브북스」—서지문<br>「소련의 신간」—홍지웅<br>「아르비트리움」—김태현 |
| 서평 18    | 고프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이정용<br>아사버거 「대중매체비평의 구조」—강명구  |
| 19       | 음악학연구회 「음악학」—이만방<br>이프라 「신비로운 수의 역사」—박세희   |
| 20       | 이문구 「산너머 남촌」—김명인<br>이제하 「진논개비 결혼」—김경수  |
| 저자인터뷰 22 | 사학자가 그린 전환기 예술가의 초상<br>「예술혼을 사르다 간 사람들」 변 이석우 교수   |
| 출판화제 23  | 비로소 한자리에 모인 한국출판의 정화<br>삼성출판박물관 지난달 29일 개관   |
| 문학시론 24  | 단편 퇴조 속 증가일로의 장편소설—박덕규<br>테마중심의 연작소설, 콩트도 양산 추세  |
| 26       | 신간안내   |
| 34       | 신간목록   |
| 42       | 기간호 총목차(45호~65호)   |
| 46       | 일간지 출판기사 색인  |
| 48       | 프리즘 (송상용)/독서퀴즈/정기구독 안내   |